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대림 제4주일



순명順命

순명이라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천명에 순종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뜻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순명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명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믿음이 항상 유지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길 위에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미사 참여를 하기 위해 나설 때,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아침·저녁기도를 드릴 때 입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머리로는 잠시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이 이외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있는 유혹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은 우리가 하느님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런 부류의 유혹들은 거창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조그마한 틈을 노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혼돈과 분란, 합리화, 그럴듯한 유혹이라 합니다.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돈과 분란을 일으킨 적은 없었는지요? 또 자기 자신을 위로한다는 명목 아래 ‘괜찮아, 이 정도면 된 거야’, ‘이 정도도(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등등 합리화의 유혹에 빠지신 적은 없었는지요?

이즈음에서 오늘 복음말씀을 살펴봅시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또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오로지 그 말씀만 듣고 믿고, 엘리사벳을 축하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어떠하였을까요? 성모님은 위대하시니까 그럴 수 있으셨다고 하는 그 순간이 또 합리화라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도 성모님과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횡橫’의 시간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縱縱’의 시간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탁하여, 머지않아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성섭 유스티노 신부 | 교구 청소년국부국장

주일 진레

제 1 독 서	미카 5,1-4
화 답 송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제 2 독 서	히브 10,5-10
복 음	루카 1,39-45

2022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 일시: 2022년 1월 4일(화) 14:00 | ■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 ■ 주례: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 속에 6명의 사제품과 3명의 부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들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목자의 길을 따라 일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단

사제품



계강준 요한
첫미사 칠원성당
2022년 1월 5일(수) 19:30



김현 안드레아
첫미사 반송성당
2022년 1월 7일(금) 19:30



임태근 모세
첫미사 호계성당
2022년 1월 6일(목) 19:30



정병진 요셉
첫미사 함안성당
2022년 1월 7일(금) 19:30



신승혁 요한
첫미사 장평성당
2022년 1월 5일(수) 19:30



남하늘 엘리시오
첫미사 대방동성당
2022년 1월 6일(목) 19:30

부제품



이창범 라자로
구암동본당



김진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문산본당



장신영 요한 마리아 비안네
옥봉동본당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품식 참석을 제한합니다.

교우분들은 마산교구 유튜브 채널(유튜브 검색: 천주교마산교구)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살아서 이룬 것 중 마지막 남은 것은

강희근 요셉 시인/ 가톨릭문인회

성 김대건 신부님 희년에 꼭 신부님에 관련된 성지를 순례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의미 있는 시편들을 쓰고 싶었다. 그러는 순간 머리 속을 훑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故 배달순 요한 시인의 서사시집을 읽고 묵상하는 과제가 그것이었다. 배 시인의 『한국의 첫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서사시집은 요한 형제가 필생의 작업으로 이룬 창작으로 교황청 도서관에 그 증정본과 관련 도서 외 1권이 전시되어 있다.

그 서사시집이 아파트에 있는 서고에 어디쯤 10여 년 동안 잠자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자 바로 서고로 들어가 내 방 책꽂이 아래 널려 있는 책 더미를 살피다가 제일 높이 쌓여 있는 데를 손으로 만지고 그 만진 책을 그대로 들어보니, 바로 놀랍게도 『한국의 첫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가 아닌가. 가슴이 떨렸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성령께서 집어주신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이 기가 막히는 우연을, 아니 기적을!

서사시집 표지를 여니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강희근 사백님께/ 주 강생 2008년 2월 25일/ 배달순 사도 요한 드림”이라 적혀 있다. 그는 죽어서 내게 ‘사도 요한 드림’이라 기명하고 있는 듯했다. 필자는 떨리는 손으로 한 번 읽었던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행적에 대한 서사시를 꼼꼼히 읽었다. 그 내용은 마산교구 가톨릭문인회 2021년 연간지에 길게 실리게 되었다. 사도 요한 시인은 젊어서 한국시의 방향을 두고 필자와 밤새워 논의했다. 숙직하면 숙직실까지 와서 논의했다. 그의 젊은 시절 지향은 새롭고 저돌적인 난해 시와 그 기법에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사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일생에 모든 것을 건 것처럼 서사시에 올인 하고 있었다.

그의 서사시를 두고 대충대충 읽으며 그가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했다. 왜냐하면 시인은 웬만하면 한 번 쓴 것을 두 번 고쳐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두 번째 수정 작업을 끝내고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필자를 불러 축사를 맡기는 것이었다. 그런 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세 번째 수정 작업을 거치고 예의 완간본 『한국의 첫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서사시집을 낸 것이었다. 그 끈기와 신앙심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집으로 한국가톨릭문화대상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 뒤 얼마 안 있어 그 증정본이 교황청 서가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희년에 故 배달순 요한 시인의 창작 작업이 주님 사업에 연결되고, 순교자 현양에 필생으로 다가간 것이었음을 확인하면서 사람은 살면서 한 가지 일을 파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한 것에 머무르는 일이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우리의 전부!”

소공동체장 연수-마산지구·창원지구

소식



소공동체장 연수가 12월 7일 월영성당(마산지구), 12월 8일 사파동성당(창원지구)에서 실시되었다. 연수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라는 주제로 여인석 베드로 신부(사목국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마산지구 101명, 창원지구 84명이 참석하였다.

예수, 개천에서 나서, 개천을 살아가신, 용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새아담

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빛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창세 2,8-9. 16-17

하느님께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낙원의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시고 따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오히려 강렬한 초대입니다. 인간이 욕망을 가지도록, 자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도록 유혹하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되니까요. 진흙으로 빚으시고 숨결을 불어 넣어서 생명체는 되었지만, 그저 목숨 부지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가 아니라, 자신을 알고 실현하는 존재가 되도록, 욕망하도록, 유혹하십니다.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습니다. 공생활 시작뿐 아니라,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시며 하신 갈등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신 그때까지, 모든 삶의 순간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유혹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우리는 유혹을 받아야 하고, 그러나 빠지지 않고, 통과해 가야 합니다.

연어에게 거센 물살은, 위를 향해 올라가라는 초대입니다. 그 물살에 지면 연어다움을 잃어버리지만 뚫고 올라가면 연어다움을 이룹니다. 힘들다고 유혹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유혹을 받는 것,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나실현’을 위한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나실현’은, 한가운데를 향해가는 것, 중심을 차지하는 것, 중심을 잡는 데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 잘못을 범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더 멋있게 가려주고 치장해 줄, 더 화려하고 더 비싼 무화과 잎을 찾습니다.

새다윗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서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 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2사무 7,5-7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국가의 첫 번째 왕이며(2사무 5,3), 여부스 주민들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랑하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2사무 5,7). 그리고 방치되어 있던 계약의 궤를 화려하고 장엄한 의식을 갖추어 예루살렘으로 모십니다(2사무 6장). 하느님이 거부하셨던 성전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결국 지어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느님을 한 장소에 모셔두려 -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 하였고, 그는 우상을 섬기고 백성을 핍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빌론은 거대한 힘의 상징입니다. 바빌론은 하느님 백성을 괴롭힌 거대한 '세상 힘'이었고, 또한 하느님의 대척점에 있는, "마귀들의 거처,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굴,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묵시 18,2)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경합니다. 그들이 본 바빌론 신전의 거대한 탑이, 자기 이름을 떨치고자 건설하려 했던 바벨탑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렇듯 이스라엘은, 그들 안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네!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는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루카 13, 34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루카 19, 41-42

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 -루카 21, 5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마굿간의 구유에서 삶을 시작하신 분은, 나자렛에서 자라나고, 갈릴래아에서 활동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인 서울'하셔서,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 하느님께 의탁 이 아닌 하느님을 사로잡고 있으려 하는 이스라엘의 왜곡된 욕망, '인 서울'의 집착을 깨고자 하십니다.

이무기와 용

유통업계가 업계의 지형도를 바꿔 놓을 만한 '인수합병(M&A) 매물'을 놓고 '유통대전'을 치르고 있다. 현재 업계 를 달구는 대표적인 매물은... 그다지 큰 매물은 아니지만 박빙의 차로 업계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유통 업계 입장에서는 알짜의 신규 부지 확보와 업계의 말형 자리를 놓고 일종의 '자존심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유통 빅3 그룹이 저마다 오너와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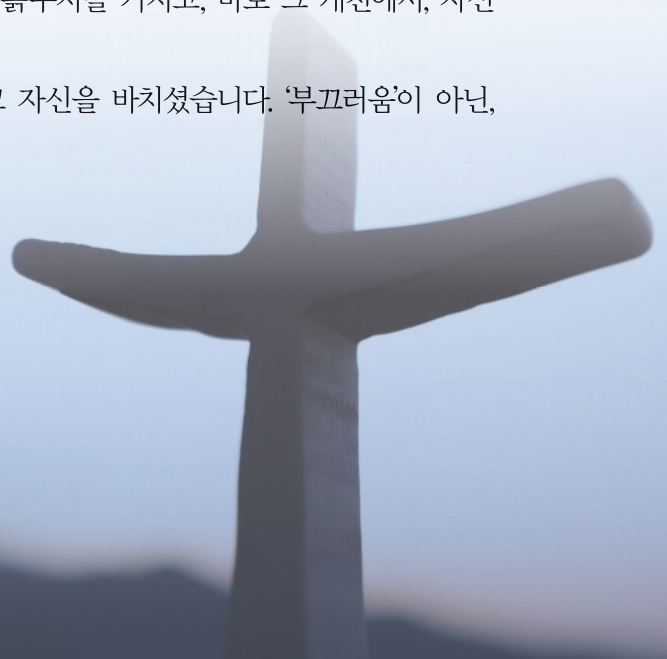
-100128 주간경향, '용이나, 이무기나' 유통 'M&A 여의주' 쟁탈전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의주를 물지 못해서, 또는 사람들 시선에 드러나서입니다. 여의주를 세 개나 물었지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이무기도 있습니다. 여의주는 바로 '나'를 드러내는 정체성 입니다. 여의주는, 그것을 물면 용이 되는 외부적 특별한 것이 아닌, 내가 용이 되었을 때, 내 안에 머금게 되는 그것입니다. 여의주를 물어야 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용이 되어야 여의주를 품는 겁니다.

나를 영어 내지 못했을 때 나는 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시선에 사로잡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 며 가리려 들면, 용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가지면 나를 실현하는 줄 착각하고, '나 자신'보다 다른 무 언가를 자꾸 움켜쥐려 해도 용이 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이라는 여의주 하나를 품어야, 용 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한가운데', '중심'입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을 잡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향하려 하면 이무기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세상용의 정체는 이무기입니다. 흙수저 타령, 개천 타령하는 이무기요. 그런 이무기 는, 금수저를 물어도, 개천을 탈출해도 이무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흙수저를 가지고, 바로 그 개천에서, 자신 을 익혀내면, 용이 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개천의 용이신 그분은, 온전한 알몸을 드러내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환히 빛남'입니다.





교구장 동정

주님 성탄 대축일미사

일시: 12월 24일(금) 20:0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교구/본당

신학생 교구장 방학인사

일시: 12월 20일(월) 11:00

장소: 교구청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김원자(에밀리아나)

담당판사: 여인석(베드로)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12월 23일(목)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12월 기도모임

일시: 12월 20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 타

가톨릭사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원서접수: 12월 30일(목)~22년 1월 12일(수)

문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2022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12월 30일(목)~22년 1월 3일(월)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문의: 입학처 051·510·0702~8, 0804~8

2022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안내

모집: 정시 249명 + 수시이월인원

·[가군] 학생부교과 선발
(고교 졸업/ 점성고시 출신, 수능 미반영)
유스티노자유대학(전면 원격수업 진행)
복지서비스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탐정
학과/ 부동산경영학과

·[나군, 다군] 단과대학 통합선발(희망학과
우선선택)

·다양한 장학금·학생복지혜택

문의: 053·850·2580

양업고와 함께하는 행복한 겨울 캠프

일시: 22년 1월 7일(금)~9일(주일) 2박 3일

장소: 양업고등학교

대상: 중학교 1~2학년/ 비용: 15만 원

접수: 양업고 홈페이지(12월 27일부터 선착순)

문의: 충북 청주 양업고등학교 043·260·5078

부산교구 겨울음악학교

일시: 22년 1월 21일(금) 09:00~22일(토) 20:00

장소: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주제: 대림과 성탄 전례 및 전례특송곡

과목: 발성법, 합창지휘,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중 택일

신청: 22년 1월 10일(월)까지

수강료: 일반 15만 원(마감이후 16만 원)

문의: 051·519·0474/ www.bcmusic.or.kr

2022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22년 2월 9일(수)까지(우편신청가능)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금) 16:00~22년 1월 1일(토)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 해맞이행사, 신년

대축일미사(주례: 신은근 바오로 신부)

신청: 60실(1실당 1~2명) 선착순 마감,

계좌-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문의: 055·221·1891~2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나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강영구 루치오 신부 모친 선종

찬미예수님! 강영구 신부 인사 올립니다.
지난 12월 10일 저의 어머니 조 헬레나님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어머니의 소원을 축하하면서 조출
한 감사 잔치를 베풀어드렸습니다. 백년 가
짜이 어머니를 담았던 몸은 수원교구 안성
공원묘원 선영에 아버지와 합장으로 모셨습
니다. 어머니의 안식과 저와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청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뒤늦은
인사를 올립니다. 강영구 신부 두 손 모음

옥봉동본당 제3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박희식(아고보)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정두현(요셉)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윤복희(모니카)

총무: 김창수(토마스 아퀴나스)

기획재정분과위원장: 문선화(안나)

복음화분과위원장: 하진순(로사리아)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서명선(도나다)

전례분과위원장: 송경인(요안나)

구역분과위원장: 문우분(베로니카)

복지분과위원장: 신홍자(마리아)

시설분과위원장: 박진욱(프란치스코)

청소년분과위원장: 김경숙(프란치스코)

월남동본당 제27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최정미(데레사)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준규(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성자(헬레나)

총무: 남영옥(프란치스코)

재경분과위원장: 변귀순(아녜스)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소연(데레사)

전례분과위원장: 강삼숙(데레사)

사회교육분과위원장: 이란(제노베파)

구역분과위원장: 이종선(레나타)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문숙(벨라데타)

홍보분과위원장: 강중현(그리산도)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소향(아녜스)

성경분과위원장: 김인숙(올리비아)

봉사분과위원장: 최원태(토마스모어)

시설분과위원장: 최남배(루카)

여성분과위원장: 김선미(요안나)

서울성지순례 2박 3일 25만원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Viriditas

"생명을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갈드

힐데갈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스킨



힐데샴푸



EM힐데비누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동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22. 1. 3.(월)~6.(목)/ 22. 1. 7.(금)~9.(주일)

22. 1. 10.(월)~12.(수)

한국성지 167 완주

22. 1. 17.(월)~20.(목) 전주·광주대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주식회사 바론 23492387/23492388/23492389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칼라무니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도장공사업

주식회사 바론(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전화 : 010-5055-0076



신앙의 유랑민-황순원의 『움직이는 성』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황순원은 단편소설 ‘소나기’로 잘 알려진 작가이다. 『움직이는 성』은 그의 장편소설로서 사상적으로 원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쓴 문제작이다.

새로운 종교가 들어올 때는 원래 있던 신앙과 갈등이 생긴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든 섞이거나 하면서 토착화되어 간다. 이 작품은 근대에 유입된 기독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민간 신앙의 주술성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깊이 있게 파헤치고 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움직이는 성’은 한반도에 정착해 온 우리 민족이 근원적으로 유랑민 근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이를 표현한 것이다. 성이란 원래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정신적 문화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한곳에 정착하지 못한 유랑민들에게는 고유의 성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몸에 밴 유랑민 근성이 그 성의 구실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움직이는 성’에 기독교는 어떤 모습으로 유입되는 것일까. 소설의 유장한 내용을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는데 대신 세 명의 등장인물의 모습을 보도록 하자. 이들의 운명이 곧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통합되어 가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먼저 민속연구가인 ‘민구’이다. 그는 한국 전래의 샤머니즘을 연구하면서도 학문보다는 현실적 세계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는 교회에도 나가고 무속 신앙에도 빠져들며 신의 세계와 인간의 삶을 대비적으로 파악한다. 그렇게 그는 현실의 요구대로 사상을 변화시키는 유랑민의 모습을 보여 준다.

다음은 ‘성호’이다. 그는 전도사를 거쳐 목사가 되었다가 교회에서 추방되는 인물로서 스승의 부인을 사랑한 기억을 원죄처럼 지닌 채 살고 있다. 교회에서 추방된 후에도 그는 기독교 전도 사업에 몰두한다. 특히 그는 한국 교회 속에 깊이 침투해 있는 샤머니즘의 벽을 깨달은 뒤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의 토착화 문제를 생각하는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준태’이다. 그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인물로서 어리석은 샤머니즘에 공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독교가 지닌 광신주의에도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의식을 지닌 그는 결국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유랑민처럼 살아가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다.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토착화되는 데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지만 결국은 갈등이 아니라 화해이다. 이 시대의 일반인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 가치는 무속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봄, 가을 날 잡아 굿하구, 음력 정초와 칠월 칠석엔 빼놓지 않구 치성을 드리구, 크흠, 그뿐인가요,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살풀이를 한다, 푸닥거리를 한다, 그야말로 무당집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죠, 크흠. 굿을 한 번 하자면 줄잡아두 지금 돈으루 몇 만 원 풀어야 하구, 치성 한 번 드리는 데두, 사오천 원 들여야 했답니다. 크흠, 그게 예수를 믿으면서부터는 술 담배까지 끊게 됐으니 더 절약될 밖예요, 크흠”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1970년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샤머니즘 대 기독교 사이의 이율배반 속에서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삶의 자세 등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그래서 ‘움직이는 성’은 고집스레 견고하기만 한 성이 아니라 오히려 관용과 화해의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따지고 보면 이율배반적이다. 여전히 신앙은 ‘구복적’ 모습이 많고 이는 저 뿌리 깊은 무속적 전통 속에 닿아 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신앙의 유랑민’으로서 우리 속에 내재된 이 ‘움직이는 성’을 따뜻한 눈으로 응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온 세계는 저마다 다양한 색깔로 성탄의 기쁨을 맞는 것이 아닐까.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 2021년 10월 1일~11월 30일

▶총액: 132,070,000원

1. 사제

성명	금액
강윤철	10,000,000원
김정훈(라)	4,800,000원
김형렬(5차)	400,000원
박창균	5,000,000원
박태정	5,000,000원
서시몬	2,000,000원
유영봉	10,000,000원
이상록(6차)	400,000원
이정근	1,000,000원
이중기	4,800,000원
최용진(2차)	2,000,000원
최태준	2,500,000원
함영권(2차)	600,000원
익명	1,000,000원
합계	49,500,000원

2. 기관, 시설, 단체

명칭	금액
교구 전례와 꽃 예술학교	5,000,000원
그리스도의 성혈흡송 수녀회(2차)	3,000,000원
마산수녀연합회	2,000,000원
섭리의 딸 수녀회	5,000,000원
신반공소	1,700,000원
의료법인 예경의료재단	10,000,000원
중동본당 모니카회	2,000,000원
창원 늘푸른신용협동조합	10,000,000원
창원 베네딕도 성경학교	30,000,000원
합계	68,700,000원

3. 개인

성명(소속)	금액	성명(소속)	금액
김정환	1,000,000원	전연옥	1,000,000원
김형태	1,000,000원	정현호(광주 중동, 5차)	300,000원
민화임	200,000원	조화신(광주 중동, 5차)	200,000원
박은미	10,000,000원	익명1	60,000원
원유은	50,000원	익명2	60,000원
합계		합계	13,870,000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1. 대상: 신축기금을 교구청 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자

※ 본당별 계좌로 송금한 신자는 본당 사무실에 문의 바람

2. 후원 기간: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3. 신청 기간: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4. 문의: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 055·249·7121